

# 광주 도시철도2호선 1단계 구간 도로 개방 본격화

강 시장, 산수오거리서 시민 보고 시설물 철거...필문대로 통행 재개 순차 임시포장...내년 상반기 완료 대중교통·자전거·보행 도시 박차

광주 도시철도2호선 1단계 공사 구간 개방이 본격화됐다.

광주시는 순차적으로 도로포장 및 준비를 마친 도로에 대해 차량 통행을 신속히 재개하기로 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시장은 이날 동구 산수오거리 인근에서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도로 개방 관련 시민 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 시장을 비롯해 박미정·홍기월 광주시의원, 임택 동구청장, 지산·산수·동명동 주민자치회 등 시민이 참여했다. 그동안 산수오거리 인근 도시철도 공사 구간의 도로교통을 차단한 PE방호벽과 라바콘 시설물을 치우고 도로 개방의 첫 시작을 알렸다. 공사기간 동안 왕복 4차로로 통행되던 차도는 이번 개방에 따라 8차로 운행이 가능해졌다.

광주시는 도시철도2호선 1단계 구간의 도로포장이 완료된 구간에 대해 순차적으로 도로를 개방한다. 다만, 도로 개방을 위해서는 통행차량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경찰청 협의, 교차로와 교차로 사이 일정 구간의 확보 등 필요해 순차적으로 개방한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임택 동구청장, 시민들이 23일 광주 도시철도2호선 1단계구간(지산사거리~두암지구삼거리)에서 교통개방 행사를 갖고 PE방호벽과 라바콘 등 교통차단 시설물을 철거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또 현재 개방한 도로는 차량 통행을 위한 임시포장이어서 매끄럽지 않을 수 있다며 내년 상반기 중 공사 구간과 인접 차량의 전면 재포장을 통해 정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날 필문대로(지산사거리~산수오거리~두암지구삼거리) 도로 개방을 시작으로 이날 중 상무중앙로(BYC빌딩 주변), 금화로(금호동 중흥1

단지~월드컵경기장 앞), 대남대로(봉선동 남광주농협~명지로드힐), 월드컵서로(광주FC경기장 주변) 등 4개소 약 2.4km의 도로포장을 완료하고 교통을 재개한다.

광주시는 겨울철 폭설, 기온하강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나 새해에도 상무중앙로(유덕교하부~유촌동), 필문대로(조선대사거리~지산사거

리), 서암대로(서방사거리~광주역 행복주택) 등을 개방한다. 광주시는 내년 8월까지 전체 구간 도로의 완전 개방을 목표로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광주시는 당초 예상보다 도로 복구 일정이 다소 늦어진 것에 대해 "암반 등 지장물이 많이 발견됐기 때문"이라며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도시철도2호선 공사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감

사를 전했다.

광주시는 도로포장 등 2026년 도시철도2호선 1단계 개통 가시화에 발맞춰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에 박차를 가한다. 광주시는 도시철도2호선과 연계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버스 노선 전면 재편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어린이 무상교통 시대를 본격화한 대중교통 할인정책인 지(G)-패스 정책도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걷기 좋은 길' 조성을 위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남대병원 보도폭 확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차 없는 거리' 운영을 통해 대자보도시에 한발짝 더 다가선다.

이날 도로 개방에 참여한 한 시민은 "드디어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가 끝나고 있음을 실감한다. 더 큰 행복을 위해 불편을 참아왔던 만큼 더욱 기쁘다"며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성탄선물을 받은 것 같다"며 말했다.

강기정 시장은 "시민들의 많은 도움으로 도시철도2호선 개통이 가시화하고 있다"며 "이번 도로 개방은 단순하게 교통을 재개한다는 의미를 뛰어넘어 시민 불편을 하나하나 걷어내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동안 공사로 많은 불편을 참아주신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며,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사를 마칠 것이다"고 밝혔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 '뉴:빌리지' 선도사업에 광주·전남 5곳 선정

광주 광산·광양·담양·강진·장흥 노후 저층 주거지역 주택 정비 조성, 지역특화재생 분야 선정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수 있도록 금융·제도적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에 광주 1곳, 전남 4곳이 선정됐다. 또 지역특화재생 분야에 전남 1곳이 선정됐다.

전남도는 올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

업 공모에 전국 최다인 5곳이 선정돼 총 673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지역특화재생' 분야에 △장성군 '편백으로 치유하는 큰푸른 장성'과 '뉴:빌리지' 분야에 △광양시 '주거정비로 새로운 도약, 그린에너지 생활마을' △담양군 'JIU(지유)와 함께 살아가는 담양 대치빌리지!' △장흥군 '생활권 중심지로의 재도약! 머무름이 행복한 관산읍' △강진군 '살기 좋은 행복 보금자리, 목리' 등 2개 유형 5곳이다.

이에 전남도는 2029년까지 총사업비 1122억 원(국비 673억원·지방비 449억원)을 투입해 지역브랜드 거점 구축, 주민 정주환경과 기반·편의시설 개선 등의 사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특화재생' 사업은 지역의 역사, 문화 등 고유자원을 활용해 지역 특색에 맞춘 도시재생사업으로 전국 6곳 중 전남 1곳이 포함됐다. 선정된 장성군은 250억원을 투입해 축령산 정정자연 목재와 편백 등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해 연관산업 유치 등을 통해 새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

다.

올해 신규 도입된 '뉴:빌리지' 사업은 노후 단독주택, 빌라촌 등 저층 주거단지 와 개별주택 정비를 지원해 노후주거지 생활환경 개선과 기반·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거주민의 정주 환경을 크게 개선하는 사업이다. 전국 32곳 중 전남 4곳이 포함됐으며, 광양시·담양군·장흥군·강진군에 872억원을 투입해 민생 중심의 노후 주거지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에서는 광산구 우산동이 뉴:빌리지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사업 대상 구역은 우산동 1025-1 번지 일원으로, 광산중학교·송우초등학교에서 향약경로당까지의 공간을 포함한다. 2025년부터 2029년

까지 5년 동안 총사업비 196억원(국비 98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2014년부터 시작한 도시재생사업은 지금까지 21개 시군 53곳에 7554억원을 투입해 올해까지 11곳이 완료됐으며, 42곳은 정주환경개선, 청년 창업 공간조성 등 사업이 진행 중이다.

문인기 전남도 지역계획과장은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주민 생활여건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다"며 "역사, 관광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생활인구 유입 등 지방소멸위기 극복에도 기여하도록 사업 추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 무안에서 출발하는 색다른 해외여행, 이제는 무안에서 편하게 떠나자!

이 외의 상품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여행문의는 홀로당당으로~

문의/예약 : 1522-1901



**도쿄/나리타 온천여행**  
24.12.02~25.03.26  
매일 출발가능  
★오후 출발★  
1인 989,000원~  
★날짜별 상이★



**무안출발 씨엠립 관광**  
24.12.29~25.03.16  
매주 목요일(3박 4일)  
★오전출발★  
매주 일요일(3박 5일)  
★오후출발★



**무안출발 방콕관광**  
24.12.08~25.03.23  
매주 목요일(3박 5일)  
★오후출발★  
매주 일요일(4박 6일)  
★오후출발★



**도쿄/요코하마 여행**  
24.12.02~25.03.26  
매일 출발가능  
★오후 출발★  
1인 969,000원~  
★날짜별 상이★



**무안출발 하노이 관광**  
24.12.15~25.03.26  
매주 수요일(3박 4일)  
★오전 출발★  
매주 토요일(3박 5일)  
★오후 출발★



**무안출발 대만 관광**  
24.12.02~25.03.26  
매일 출발가능  
★오후 출발★ 3박 5일  
1인 899,000원~  
★날짜별 상이★